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미래차 허브로 뜬다

광주시, 선도기술지원센터·글로벌비즈니스센터 준공 전기차·자율주행차 필수 국내 최대 전자기적합성 장비 구축

친환경·미래차 전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반시설인 선도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동지를 틀었다.

광주시는 1일 이용섭 시장, 양향자 국회의원, 김용집 시의회 의원,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박상철 호남대 총장, 송중욱 광주은행장, 김세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김화영 FITI 시험연구원장, 관련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도기술지원센터 내 실차 EMC(전자기적합성) 챔버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준공식에서 기반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데 기여한 최승근 남양예스티엔 대표이사 등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친환경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내년까지 친환경차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증 장비 및 센터 조성 등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차(EV) 플랫폼, 융합전장, 경량화, 특수목적차량 등 35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게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3030억원(국비 1431억원·지방비 1405억원·민자 194억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준공된 기반시설인 선도기술지원센터는 국내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기술 및 부품개발 지원을 위해 180여종의 시험·인증 등 장비를 갖춘 종합 기술지원동이다. 특히 전기차 등 전장화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전자파 시험·평가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굴절 버스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차 전자기적합성(EMC) 챔버(공간)를 구축했다.

그간 전자파 시험·인증을 받기 위해 수개월씩 대기하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중소·중견 협력기업 유치 및 육성과 부품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양성·컨설팅·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컨벤션 및 사

무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종합지원동을 갖는다. 정보 허브(hub)이자 학습 및 교류의 장으로서 다양한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센터 준공식과 동시에 미래차 전환에 참여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100개 사의 서명식,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현판식 등도 개최했다. 광주시는 'AI·메타버스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광주' 조성을 목표로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일자리와 연계한 미래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15

대 미래차 전환 핵심사업 추진 ▲미래자동차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준공은 미래자동차 광주 시대를 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형일자리도 처음에는 모두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GGM을 만들고 캐스퍼를 양산한 것처럼 미래차 전환도 지역 자동차 기업 여러분과 함께라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일 오후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내 그린카진흥원 선도기술지원센터에서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준공식이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클러스터 내부의 시설물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2040 도시계획 MZ세대 의견 담는다

광주시는 "20년 후 광주의 모습을 시민이 직접 설계하는 '2040 광주플랜' 2단계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MZ세대의 의견을 추가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40 광주플랜'은 2040년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주거재생, 교통, 공원녹지, 복지, 경관, 경제, 토지이용, 방재안전, 문화, 환경 등 10개 분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40 광주플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로 댓글이나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2단계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견이 수렴됐지만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MZ세대의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10일간의 홈페이지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단계 시민참여 의견이 모아지면 시민이 생각하는 미래상과 이를 반영한 부문별 자료를 정리해 연말에 시민에게 알리고, 내년 7월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초·중·고교와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협치한마당 등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에 광주시의 미래 주인인 청소년과 MZ세대가 지향하는 도시 구상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도·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발전사업 머리 맞췄다

광주시, 전남도, 17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내년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일까지 이틀간 나주 스페이스워크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와 함께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수업을 위해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제도 시행 5년 차를 맞아 그동안 발생한 여러 시행착오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 등이 조화를 이루고 이전 공공기관별 기능 및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부의 지침을 상세히 공유하고, 각 기관이 내년에 추진할 핵심사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은 전남도와 광주시에 정주여건 개선 등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찾아달라 요청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내년 새로 수립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 관련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광 대마산단에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반 구축

'노후 전력기자재 기술개발' 공모 전남도 4개 사업 선정 173억 확보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공모에서 기반구축 조성사업과 재제조 연구개발(R&D) 3개 과제 등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73억원을 확보했다.

재제조 산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로, 자원순환 경제를 통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력기자재 재제조는 성능이 저하된 부품을 진단, 분해, 조정, 재조립의 과정을 통해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기술이다. 제품의 성능은 신품과 거의 유사하지만 가격은 신품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전남도는 사업 확장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전력기자재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광 대마전기 자동차일반산업단지에 오는 2024년까지 국비 94억원, 지방비 12억원, 민자 13억원 등 총 119억원을 투자해 전력기자재 재제조 성능평가 기반을 조성한다.

함께 추진하는 ▲가스절연차단기 재제조 기술개발(국비 29억원) ▲노후 배전반의 ICT 융합 스마트배전반 재제조 기술개발(국비 25억원) ▲노후 케이블 재제조 기술개발(국비 25억원) 등 R&D 3개 과제와 연계해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재제조 산업이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도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 녹색에너지연구원, 목포대와 함께 공모를 기획했다. 이번 공모에는 재제조 제품의 경제성 및 해외시장 분석, 주요 기술개발, 기반 구축,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 전력기자재 재제조를 위한 로드맵을 담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형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원

이용섭 시장, 건설업계 애로 청취 업체, 대형공사 분할발주 등 건의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지역건설업계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간담회에는 김영주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장과 지역 건설업계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영주 회장 및 업체 대표자는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극 추진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건설업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민·관이 협력해 지역 건설산업

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건설업계의 고충이 많겠지만,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도시재생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대형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 건설업체 경기회복 및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한해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제한 입찰 제도 활용,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와 지역의무공동도급 49%,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신규 민간건설 재개발 재건축 공사에 있어 시, 자치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건설업체 우수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